

국회의원 성일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대한민국국회

보도자료

(2016. 9. 2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2, Fax : 02-788-0190, <http://www.sungij.co.kr>

성일종 의원, “과도한 서류홍수에 쓸려나가는 요양시설”

- 전체 요양기관 평균 입소정원은 32명인데, 평가 매뉴얼은 70인 기준으로 만들어
- 기관규모 상관없이 어르신 5명만 모셔도 별도의 산책로 만들어야 하는 폐해도 발생

- 과도한 서류작업과 현실성 떨어지는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을 돌아보고 지난 23일에는 관련 정책 토론회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 이를 통해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서류작업량이 과중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폭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이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실제 전체 요양기관 5,156개의 평균 입소 정원수가 32명에 불과함에도 매뉴얼은 입소정원 70인을 기준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입소정원 70인 이상인 기관은 704개로 전체기관 중 14%에 불과했다.

<표. 입소정원 규모별 요양기관>

(기준 '16.7)

| 구분 | 전 체 | 70인 미만 | 70인 이상 |
|--------|--------------------|-------------------|-------------------------------|
| 요양기관 수 | 5,156 개소 (100%) | 4,452 개소 (86%) | 704 개소 (14%) |

- 성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평가인증 메뉴얼의 기준자체를 너무 높게 설정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과도한 서류작업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항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평가메뉴얼 중 기관마다 별도의 산책공간과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 위치도 등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지표가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기존 공원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입소정원이 5명에 불과한 기관도 별도의 산책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 60%가 D나 E등급을 받아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 성 의원은 “현장에 무담만 주는 서류 중심의 평가에서 현장확인, 현장질문 중심으로 개선하고, 시설 규모별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감에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